

鄉黨之歡……中略……中樞朴公塿。扁其堂曰雙清、云云」

하였다. 이 記錄의 「別立堂凡七間」이 바로 이 雙清堂인즉 「堦其中以宜冬」과 「豁其軒以宜夏」는 現在의 西側 溫突房과 東側 大廳의 構造와 相通되는 것 같고 「中樞朴公塿 扁其堂曰雙清」은 蘭溪 朴塿이 雙清堂이라 扁額한 것이니 宋愉의 號가 곧 雙清堂이며 「且值佳節 必置酒邀客 或詩或歌 云云」한 것은 往時에 置酒遊客으로 或詩或歌하던 習을 말한 것이다.

雙清堂內에는 萬曆四十四年 丙辰 暮春之初에 後裔 八十老人 柀壽의 敬識으로 된 雙清堂重修顛末記의 懸板이 걸려 있으니 萬曆四十四年 丙辰은 光海主八年(一六一六)인 바 이 記錄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①「嘉靖甲申、祖考肯構而重新之 訥齋朴公爲之記」라 한 句節로 中宗十九年(一五二四)의 重修가 있어 訥齋朴祥의 記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②「嘉靖癸亥、余又就舊制、而加葺之 樓棟礎砌各正其位、而華彩則有加焉」라 한 句節로 明宗十八年(一五六三)의 舊制를 就하여 加葺한 重修가 있었음을 알겠으며 ③「不幸壬辰島夷猖獗連陷三都、退據南陞始然有再動之虞于斯時也、余出守通川郡、竊念此堂難免兵火、深慎諸賢之作泯沒而無傳、令家豚希建階書懸板袖來通川藏于篋笥、逮于丁酉剪焉、傾覆瓦礫荒墟 椽椽目可豚痛哉、舊祠堂亂後巋然於此堂之 庚子建于西阜之上今也、賴一門諸賢之助 雖未能盡復舊制堂宇粗成 云云」한 바로 壬辰 丁酉兵亂에 傾覆褪落되어 重修가 있었는데 亦是 舊制를 復原하기에 努力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雙清堂內에는 懸板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中には 末尾에 「崇禎後八十年 戊子六月 日 雙清府君九代孫 前大提學相琦謹記 九代孫 謂弼書」라 한 「雙清堂重修記」가 있고 또 「崇禎五周 戊子 十月 日 十六代孫 大臣輔國崇祿大夫 領中○○謹記 十七代孫 敦淳謹書」라 한 「雙清堂重修記」가 있다. 前者는 肅宗三十四年(一七〇八)에 重修한 것으로 記錄中에 「面背左右一遵舊制母敢變易、堦其西者二間、軒其東者四間、而軒之廣礎之高視舊皆制、又一華彩藻飾則不超過之矣」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舊制를 變更하지 않았음을 알겠고 또 當時의 制度와 現在의 面貌가 同一함을 알 수 있다. 後者는 高宗二十五年(一八一八)의 重修인 바 이

와 같은 重修를 거쳐 現今에 이르고 있다.

四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이 이 雙清堂은 累次의 重修가 거듭 되어 왔음으로 創立當初의 制度와 그 部材가 많이 變動되었을 것이나 重修때마다 舊制를 固守復原하기에 努力하였던 모양이니 創立當時의 傳統이 維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現存하는 遺貌로 보아서 李朝中葉(壬辰直後)의 重修모습을 傳하는 建物로 推定된다. 같은 洞리에 있는 寶物(一〇九號 同春堂 ①과 松崖堂 ②) 등도 雙清堂의 建築樣式을 踏襲한 것으로 이들은 李朝住宅建築研究의 唯一한 資料이다. 三者가 建築樣式도 同一系統을 하였지만 主人公의 雅號를 堂名으로 한 것도 同一하다. 그리고 雙清堂은 同春堂이나 松崖堂에 比하여 古色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던가 또 는 精巧한 手法이 보이는 것 등은 더욱 重要視되어야 할 資料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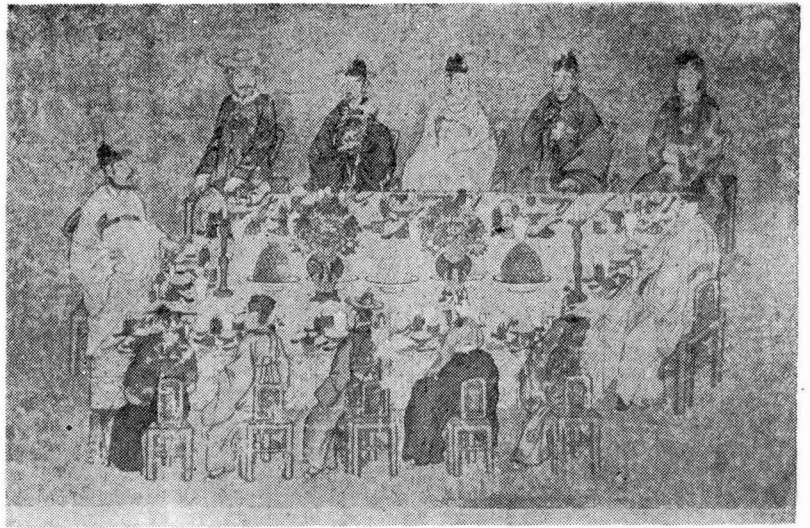
註

- ① 國寶圖錄卷六 楮 목 조지물편 圖版二八 同解說參照
- ② 松崖堂은 宋柀壽의 外孫 金慶餘가 建立한 것으로 懷德面中里(白達村)에 現存하는 것이니 그 制度와 建築樣式은 雙清堂·同春堂 등과 같다. (仁祖年間建立)

韓日通商條約調印祝宴圖

崔 淳 雨

高宗二十年(一八八三)六月二十二日、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을 全權으로 하는 協辦交涉通商事務 金弘集、同 穆麟德(Paul Georg Möllendorff) — 獨人)等 朝鮮側 代表와 辨理公使 竹添進一郎을 全權으로 하는 日本側 代表와의 사이에 協商해오던 韓日通商章程 및 海關稅目을 비롯한 數個 約條를 調印하게 되었다. 이날 調印을 끝낸 朝鮮側 全權 閔泳穆은、儀禮上 이 條約 交涉에 參與했던 兩國의 官吏들을 招待해서 晚餐會를 여럿음



직하고 또 요사이 같 으면 의당 調印式이 나 晩餐會의 光景을 紀念攝影하였음지도 한 일이었다. 그러나 實際로 그러한 晩餐會를 갖고 또 그러한 寫眞을 찍었는지의 如否는 알길이 없 었으나 요사이 마침 梅山考古館秘藏의그 림중에서 바로 이날 의 晩餐會光景을 그 린 作品하나를 보게 되었다. 이 그림이 絹本에 濃彩로 그려진 높이가 三三·三 cm 폭 五三·五 cm의 조그마한 額子그림이 지만 큰食卓을 中心으로 둘러앉은 十二

人의 各國人士들이 氣品있게 그려져서 李朝末 開國期の 俗가뿐 우리의 國情을 보여주는 記錄畫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作品임을 알게 되었다. 이 十二人의 人物中에 왼쪽 모서리에 앉은 흰 公服차림에 구레나루수염이 길은 人物이 主人格이라는 것은 座中の 視線이 그리로 쏠려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이되며 그 맞은편 모서리에 앉은 흰 公服차림의 人士가 座席의 順位로 보아 아마도 次席인 것같이 보여진다. 그러나 食卓의 건너편 中央部에 자리잡은 三人의 常服 또는 公服의 韓人들과 그들과 마주해서 등을 보이고 앉은 三人의 韓人士人淑女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는 힘든다. 우선 席位로 보면 왼쪽 모서리의 主人席 人物이 바로 督辦交涉通商事務、즉 全權인 閔泳穆으로 보이며 그 건너편 모서리에 마주 앉은 人物이 그 次位로 볼 수 있는 協辦 金弘集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이 交涉에 當한 朝鮮側人士로는 金弘集과 더불어 日本과의 稅制議定全權의 所任을 맡았던 金輔鉉, 그리고 이 通商條約에 參議交涉通商事務이던 金玉均과 金晚植、統理交涉通商事務主事이던 尹致昊 등을 들 수 있고 이밖에 吏曹判書 趙寧夏가 督辦交涉通商事務에 任命된 일이 있으나 이 交涉에 關與했는지의 그 如否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이들 데우리안에 드는 人物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된다. 畫面 맞은 便에 正面해서 中央에 앉은 흰 公服 차림의 젊은 얼굴이 金玉均이라고 傳하며 또 그 當時 이미 日語、英語에 能하던 尹致昊가 이 자리 앞줄에 등을 보이고 앉아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왼쪽 끝으로부터 둘째의 冠을 쓴 얼굴에다 比定을 해볼가 그 다음 자리의 人物은 武服차림을 했으니 尹致昊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만약에 둘째의 人物이 尹致昊라면 竹添公使로 보여지는 첫자리의 和服人物과 이웃해서 通辯의 任務를 다하고 있는 상도 같다. 正向해 앉은 맞은편 자리의 왼쪽 둘째의 人物은 常服에 雙鶴胸背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堂上官임을 알 수 있고 또 수염이 있는 面貌로 보아서 나이들어 보이니 아마 金輔鉉이나 趙寧夏같은 人士中의 한 사람으로 比定할 수 있을 듯도 하다. 가장 궁금한 점은 앞줄 끝자리에 앉은 日本女人과 이야기하고 있는 韓服차림의 淑女가 果然 누구일까 하는 點이다. 이러한 公式宴席에 나올 수 있는 代表團員의 夫人이라면 아마 尹致昊夫人밖에는 格이 안 맞을 것 같다고 하는 說도 있으나 尹致昊氏의 젊은 年齡으로 보나 當時의 職位로 보나 惟獨 그 夫人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가에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다만 이웃한 和服의 日本女人과 談笑하고 있는 姿勢로 보아 이 韓服의 女人이 日語를 解得한 다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건너편 자리를 보면 왼쪽 첫자리에 正向해서 앉은 上좌는 胷슬머리의 西洋人이 있으니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總稅務司로서 이 交涉에 協辦의 地位를 찾이했던 穆麟德이며 바른편 끝 金弘集 앞에 正面하고 앉은 女人이 穆氏夫人임은 의심할 餘地가 없다. 逸話나

記錄에도 여기 저기 傳해오지만 穆氏夫妻는 一八八二年末에 朝鮮에 와서 一八八五年末까지 三年間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夫妻가 모두 韓服을 常用하고 또 穆氏는 통영삿갓을 즐겨 썼다하니 穆氏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통영삿갓으로 생각된다. 그가 입고 있는 洋服도 아니고 韓服도 아닌 마고자 비슷한 긴 上衣는 그가 朝鮮에 오기 전에 三十年 가까이 中國에 常住했었다는 事實로 보아 아마 洋、漢、韓 三國의 折衝式이 아닐까 그 夫人의 노란 머리위에는 花冠이 없어져 있고 紫朱 끝동이 달린 異樣한 上衣를 입고 있는 품이 흥미로움다고 하겠다. 日本側代表 竹添公使는 閱全權앞에 脫帽하고 앉은 和服人士에 比定되며 그중 바른쪽 맨 끝에 앉아서 韓服의 女人과 이야기하는 日本女性이 바로 竹添公使夫人일 것이라는 것이 能히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夫人同伴의 이러한 洋式 招宴樣式이 벌써 이 時代의 朝野에 流行했던것을 생각하면 韓、獨、日의 三國人士가 同席한 이 晚餐會의 光景이 마치 近代 韓國開化의 序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禁할 수가 없다. 食卓위에 놓인 飲食은 洋食종류의 생선 튀김인것 같으며 거기에 스푼이니 나이후니 하는 洋食器, 그리고 角砂糖 그릇이 신기스러운듯이 느껴놓인것을 보면 커피나 紅茶같은 洋茶도 나와 있음을 알겠다. 木彫物인듯한 雙燭臺의 불꽃이 眞紅으로 빛나고 꽃꽂이 노란花瓶에 紅브를 둘러느린 솜씨 등 東西가 折衝된 이 신기한 분위기는 都是 宮속같은 李朝末에의 야릇한 鄉愁같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한복女性의 珊瑚비녀나 和服女性의 眞紅계다끈 등 심세한 部分까지 表現하려고 애쓴점, 그리고 十三人の 人物들이 혹은 차잔을 들고 혹은 옆을 돌아보며 各個가 다른 表情과 姿勢로 談話가 한참 무르익는듯한 場面的 表現을 보인點等은 이 作家의 능숙한 솜씨를 말해주는 것이며 다만 畫員의 한사람이었으리라는 추측이 있을뿐 作家를 밝힐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이 作家가 安心田이 아닐까하는 說도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할 도리는 지금 없을 것 같다.

鎮川 玉城里的 塔像

鄭 永 鎬

忠北 鎮川郡 文白面 玉城里 玉山部落에서 골짜기로約 1km쯤 올라가면 路邊밭쪽에 三層石塔과 石佛坐像이 遺存한다. 周圍밭에 瓦片이 散亂한 點으로 보아 이 一帶가 寺址로 推定되며 塔像도 現在 原位置는 아니나 이 寺址의 遺品임에는 틀림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곳에서約 四km쯤 더 올라가면 또 한 곳에 寺址가 있고 瓦片이 散在한다고 하는데(鎮川教育課 鄭寅和氏談) 앞으로의 調査가 注目된다.

一、三層石塔

倒壞되었었던 탓인지 各部에 破損이 많고 塔材가 놓인 順序도 바뀌어졌으며 缺失된 部分도 있다. 屋蓋石은 三層이 다 具備되었으나 塔身은 二層한층만이 남아 있다. 屋蓋의 받침은 四段式이며 落水面은 急傾斜를 이루었고 轉角에 返轉이 있으나 鈍厚한 편이다. 塔身에는 兩隅柱가 두 렷이 刻出되었다. 基壇部도 缺失되어 다만 下部에 長六三cm、厚十二cm의 方形板石一枚만 놓여있어서 原形을 알기는 困難하다. 落水面이나 屋蓋받침 등의 手法으로 미루어 年代는 高麗中期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一層屋蓋石長五七、二層은 四七、三層은 三三이며 一層塔身은 高十二幅 三六 隅柱幅 六·五이다.

二、石佛坐像

花崗岩으로 두께 二十一cm의 板石에 浮彫하였는데 蓮花座위에 結跏趺座한 藥師如來像이다. 素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고 兩耳가 길게 늘어졌으며 白毫는 없다. 鼻樑과 口唇에 若干의 磨損이 있으나 眉眼等이 뚜렷하며 相好가 圓滿하고 양볼에는 微笑를 띠었다.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通肩한 法衣는 양팔을 걸쳐 무릎을 덮었는데 그 線이 굵게 彫刻되었고 圓樣의인 印象을 준다. 光背는 圓形頭光 身光이 刻出되었으나 그